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mall Libraries Movement in Daejeon

박미라,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mulkoh@hanafos.com

이응봉,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blee@cnu.ac.kr

Mi-Ra, Park, Dept of LI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ung-Bong, Lee, Prof. Dept of L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작은도서관은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 공동체 운동이다.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으로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현재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가 마을 중심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실 이미지의 도서관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을 찾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과 전국의 사례에 비추어 1998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전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초기 공공도서관의 설립 자체가 일제 강점기 때였기에 일반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지배자와 일부 지식 계층만을 위한 도서관이었다. 따라서 현재에도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그에 따른 이용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기 보다 시험과 입시 준비를 위한 출세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가진 한계'와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갈구'(이용재 외 2007), '어린이 책 출판과 책 읽는 문화의 확산'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권 중심지역에 어린이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도서관이 지식

과 정보만을 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마을을 형성하며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주민들의 욕구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며, 대안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이다.

대안공동체 운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첫째, 사람이 가진 내면의 힘을 스스로 펼쳐냄으로써 '아래로부터' 새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고, 둘째, '소규모'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유기적 '연결망'을 중시하며, 셋째, 기존의 중앙 집권적 조직 및 운동 형식을 거부하고 대신에 '분권과 자치'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강수돌 2007)

이후 전개된 작은도서관 운동은 (김용분 2010) 전국의 다양한 운동가들에 의해 동시다

발적으로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수평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되었던 작은도서관은 2004년 6월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21: 창의한국」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 정책 과제로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사랑방형 마을도서관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가 미흡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도 작은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임을 의미하여 반가운 일이나, 공공도서관의 수적인 열악함과 도서관의 접근성에만 집중하여 민간의 작은도서관의 운동성, 정신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모색은 배제된 채, 작은도서관 설립에만 집중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계와 도서관 문화를 생각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미, 역사를 알아보고, 전국의 사례에 비추어 또 다른 모습으로 1998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전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

2.1 작은도서관의 개념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로서의 요구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 사이의 문제의식 속에서 '아래로부터', '생활단위의 소규모'로, '필요에 의한 자발성'을 가지고 생겨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문고와의 차별화된 표현이다.

김 준(2006)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칭의 유래로 "80년대 말 관 주도의 '문고'활동이 부진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이라 명명하였다. 이용훈(2006)은 "규모(시설이나 장서, 직원 등 모든 면에서)는 비록 작더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둬으로써 기존 도서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해소해보고자 한 시민들의 바람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안찬수(2006)는 "기존 문고들의 부실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서고 운영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운동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였다.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기존 문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화,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의 표출, 자발적 운동의 필요성 외에도 이진우(2006)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설립 정책에 의해 민관 협력, 지자체 주도 공립문고의 개념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고, 현재는 공사립문고 및 공공도서관의 분관까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개념과 역할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2.2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미

이용훈(2004)에 의하면 특별한 정보의 소지 여부가 삶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현대사회는 도서관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별(여타의 편견이나 빈부의 격차, 이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들은 이러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사서들의 지위나 의식도 미흡하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도 도서관을 통한 정보 접근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다. 이는 그동안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략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 도서관을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도서관 운동은 책을 많이 읽자는 단순한 독서운동이 아니라 '지식공유 사상'에 입각하여 사상과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도서관 운동은 도서관 운동 전반에서 전체 사회 운동, 민주화 운동, 생활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단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도서관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등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다.

2.3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이용재(2007), 이용남(2009), 박소희(2010)의 글과 강의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운동의 정신을 시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오늘날 작은도서관 운동의 뿌리는 60년대에 시작된 엄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으로, 농촌 계몽형 도서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새마을 조직에 흡수, 통합되어, '새마을 문고'란 이름으로 지역주민센터 등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1970년대

70년대 말 부산에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 운동은 도시형 지식공동체 운동의 성격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3) 1980년대

대한도서관연구회 중심의 운동으로 제도권 공공도서관 개혁을 위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지형들이 넓어짐에 따라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지원하는 노동도서관과 지역사회주민운동을 위한 주민도서관 활동이 시작되었다.

4)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민간 도서관 운동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활동과 더불어 어린이 책의 출판 시장이 커지면서 어린이 독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시작되었다.

5) 2000년대 이후

작은도서관 운동이 비약적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는 시기로, 확산의 계기는 책읽는사회 국민운동이 주관한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프로젝트였다.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에서 보인 가능성은 기존의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시 어려운 재정,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의 수를 최소한의 기간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델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2.4 작은도서관의 설립 정책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도서관도 자료중심·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그 기능이 변화, 강화되고,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도 변화하였다.

성정희(2006)에 의하면, 2004년 6월 문화관광부에서는 「창의 한국 21 : 문화 비전」 정책보고서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을 통해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정책과제로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를 책정,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운동적 개념이 작은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정책에 내포되지 않은 채, 공공도서관 활성화나 공공도서관의 분관화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소외, 배제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작은도서관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어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정책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2.5 개정된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개정, 공포" 보도자료(2009.3)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 개념정립을 통한 제도화 등으로, 종전의 '문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화함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도서,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2009년 3월25일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렇듯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시설과 규모면에서 '문고'였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정의하였으나 아직 많은 영역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별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곳인 공립공공도서관만을 한정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법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정의하기는 하였으나 설립, 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3.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부천시는 2001년에 창립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라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 작은도서관 설립을 이끌어낸 내부 역량이며, 지자체 - 민간 상호협력형으로 전개되어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국내 사례가 되었다. 작은도서관에 1관 당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1988년 마산에 설립된 민간도서관 "책사랑"이 작은도서관 설립 동력의 중심축이 되었고 초기설립 주체가 민간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단체와 시립도서관이 전혀 연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도서관 운영이 점차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교육센터화하면서 생겨난 결과이다. 2006년 월90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

예산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 설립을 이끌어낸 순천시는 공무원들이 중심축이며, 지자체 주도형으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었으나 시립도서관과 연계 없이 민간 자체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24개소에 월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이진우 2006).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모토로 작은도서관을 설립, 지원하고 있는 김해시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아파트 등에 다양한 장서를 갖추고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총 33개의 작은도서관에 매달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지만, 민선 5기 김해시장 부임 이후 시 부채(2715억 원) 경감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한국언론 뉴스허브 2010.08).

4. 대전시 작은도서관 현황

4.1 대전시 공립공공도서관 현황

대전시 인구는 2010년 7월 현재 1,488,909명이고, 도서관수는 시 소속 15, 교육청 소속 2개로 17개관(중구 4개관, 동구 5개관, 서구 3개관, 유성구 3개관, 대덕구 2개관)이 있으며 1관 당 인구수는 87,542명으로 전국의 평균 76,930명 보다 약 1만 명 정도 많은 수이다.

4.2 대전시 작은도서관 현황

대전시 작은도서관 수는 2008년 현재 약 177개로 공립이 26%, 사립이 74%로 사립이 세배수가 넘는다. 평균면적은 73.8㎡로 약 22평 수준이며 1관 당 장서량은 3290.6권, 열람석수는 25석 정도이다. 운영주체는 공립은 주

민 센터, 주민자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은 종교단체에서 약 42.9%, 아파트나 부녀회에서 약 15.3%, 협의회 단위의 지역주민이 약 12.2%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전국 등록 문고 현황(평균면적 80㎡(24평), 장서량 3,287권, 평균열람 좌석수 24석)과 대전시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아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의 비율도 각각 27.1%와 72.9%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은 2000년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달라진다. 공립은 44개 중 2000년 이전에 79.5%인 35곳이 이미 개관하였고, 사립은 130개 중 2000년 이후에 94.6%인 123곳이 개관하였다. 평균적으로 2000년 이전에 24%인 42곳이, 2000년 이후에 76%인 132곳이 개관하였다. 이 현상은 작은도서관 운동이 2000년대 이후 비약적 발전의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대전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흐름 :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시설이나 형태이기 전에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 평등화를 통한 계층양극화 완화 등 운동적 이념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찬수(2007)의 말처럼 작은도서관들은 '동네도서관', '마을도서관', '이웃도서관' 등 그에 부합되는 명칭들로 불리어지고 있다. 즉 마을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나 시설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고 민주시민을 키우는 프로그램 그 자체이며,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는 엄마들의 내적성장을 돕는 공간이자 생활 나눔 공간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 대전의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이라 칭하

고, 생활권 단위 활동인 마을의 의미를 중요시하였다.

대전시 작은도서관의 주요 흐름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설립 사례집(2007년)'과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3년 과정 정리 보고서'(2009)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1998년 갈마동에서 시작한 선배어린이도서관으로, 현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전신이다. 대전에 어린이도서관의 첫 시작으로 어린이 책과 독서문화 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0년 전민동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며 모퉁이어린이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 3월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내로 이전하여 사립공공도서관을 준비 중이다.

2단계, 2004년 대전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회원을 중심으로 6명의 주부들이 알짬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마을도서관 설립부터 운영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재미모금과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마을마다 생활공동체 성격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모퉁이, 알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을 중심으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모임'이 결성되고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서관학교를 열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한편, 마을의 주민조직을 형성하였다.

3단계, 2007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마을어린이도서관 설립 지원'을 테마기획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미 마을주민모임이 형성되어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관저동, 와동, 태평동, 중촌동 지역의 주민모임이 응모, 당선됨으로써 2007년 4개의 어린이도서관(관저동에 해뜰, 와동

에 또바기, 중촌동에 짜장, 태평동에 짝꿍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모임'을"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로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의 체계를 세우는 일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7개(월평동에 꿈터, 내동에 작은나무, 도마동에 달팽이, 홍도동에 어깨동무, 법동에 마루, 비래동에 꾸러기, 추동에 호숫가)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전시장의 '작은도서관 100개 공약 사업'으로 2008년도에 5개, 2009년도에 5개를 지원, 설립하였는데 그중 2개(갈마동에 땅콩, 대화동에 차오름) 도서관이 현재 협의회와 함께 하고 있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대전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대적 협력을 통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1>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소속 작은도서관의 평균 현황이다.

<표 1>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평균 현황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소속도서관

| 도서관 수 | 면적㎡ (평) | 열람 좌석수 | 장서 (책) | 개관일 시간 |
|--------|--------------|--------|--------|------------|
| 15 | 105.54 (32평) | 37석 | 5386 | 월23일 주35시간 |
| 자원 활동가 | 이용자 수 | 동아리 수 | 프로 그램 | 지역네트 워크 |
| 22.7 | 일40명 | 4 | 7 | 7 |

5. 대전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의 및 발전방안

5.1 대전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활동으로 살펴본 대전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마을도서관운동으로서 대전 시민들의 삶의 욕구와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명한 의의와 역할이 있다.

김용분(2010)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대전 작은도서관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1. 생활영역이 같은 마을주민에 의해 주민 공동체로 설립되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마을도서관은 시민단체와 강한 협력관계를 이루나, 서로 독립된 조직임을 분명히 한다. 시민단체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을도서관의 운동영역을 넓히는 기반확대와 교육에 있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도서목록의 표준화, 공동교육,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도서관만으로 하기 힘든 지역 사업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5.2 대전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안

대전의 작은도서관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현황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설립방식

도서관은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그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특색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 하에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작은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설립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역에 맞는 도서관의 수, 규모가 미리 산정되어 있어야 하며 무분별해질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 후 신고방식에서 설립 전 계획부터 지역에 적합한 도서관의 모습을 그리며 기획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의 주체가 중요하다. 운영의 주체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가 도서관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2) 시설

대전시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105.54㎡(약32평)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립 장소로는 현재 상가 내에 9곳(65%)이 위치해 불안정한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 도서관지원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인력

대체적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보다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이나 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됨으로써 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있다.(이진우 2006)

사서의 부재로 자원 활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원활동가에 대한 재교육과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사서 채용에 있어 예산상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작은도서관의 정신을 이해하

고 활동할 수 있는 '시민사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서들의 재교육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서들이 도서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지역과 같이 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 인터넷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작은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용자 대면 서비스를 가장 가까워서 경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예산

운영 현황의 모든 부분 중심에 있는 것이 예산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 지자체나 지자체 장만의 의지에 매달려서는 한계가 있다. 작은도서관 지원법이나 조례 등을 통한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도서관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각 도서관마다 기금 마련 기구를 조직, 설치하여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거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와 같은 중간지원·협력 기구를 설치하여 후원을 받아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5) 자료

도서관의 질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질로 결정된다. 이것은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도서관의 활성화에도 중요하다.

운영 예산 중 일정 비율의 자료구입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장서

를 고민하고 신간 구입을 담당할 수 있는 장서개발팀, 신간구입팀이 있어야 한다. 자체 관리가 어려운 도서관을 위해 중간협력기구(협의회 등) 안에서 자료의 목록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6) 이용 및 서비스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대상인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고유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고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도서관 네트워크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대립,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행정단위의 협의회, 운영위 등의 연계 시스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의 기타 다른 단체와의 연대도 고려해야 한다.

6. 결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공간에서 떨어져 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밀접하게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자리 매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자구책, 자발성으로 시작된 것이 작은도서관이다.

대전시에서도 2005년 이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시설이나 공간이기 전에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의 완화 등 운동적 이념성을 반영하고 있

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곧 작은도서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설립 방식, 시설, 인력, 예산, 자료, 이용 및 서비스, 도서관 네트워크 등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전시 도서관 정책이 큰 틀에서 서로 연계하여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설립위주로 진행되었던 작은도서관 정책이 행정적,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비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 2007. 대안공동체 운동의 평가와 전망. 진보평론, 32호(여름).

김용분. 2010. 정부주도와 NGO주도 정책과정 모의 정책효과성 비교분석 - 대전광역시 작은 도서관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준.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2006(3).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2007.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이도서관 설립 사례집.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2009.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3년 과정 정리 보고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박소희. 2010. 경인지역 작은도서관 활동가 워크숍.

성정희. 2006.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 2006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워크숍. 2006년 8월29일 ~ 30일. 경기:북사골 문화센터. 2006.

안찬수. 2006. "문고가 아닌 어엿한 도서관으로!" 도서관계. 2006(4).

안찬수. 2007.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학교자료집.

이용남. 2009. "도서관의 시작과 본질은 무엇인가?". 모퉁이도서관 자원활동가 특강.

이용재 외. 2007.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이용훈. 2004.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민간 도서관활성화를 위한방안 모색. 어린이도서관연구소(편).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이용훈. 200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행복한 만남". 도서관계. 2006(5).

이진우. 2006.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